

# 첫번째 시현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또 다른 기록들

## 역사, 1832년 여름 무렵



“나는 주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했다. 내가 찾아가 자비를 구할 분은 그분뿐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숲에서 드린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그분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대낮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이 내려와 내게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으며, 주님은 내게 하늘을 열어 주셨고 나는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조셉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가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보라, 나는 영광의 주로다. 나는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보라, 세상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있으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도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땅 위의 백성들에 대하여 내 분노가 불붙나니, 나는 그들이 경건

치 못함을 이유로 그들을 방문하여 선지자와 사도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것을 가져다주리라. 보라,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구름 가운데 오리라.’

내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나는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다.”

## 일지, 1835년 11월 9~11일

“나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내 머리 바로 위에 불기둥이 나타났다. 불기둥은 이내 내 앞에 내려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으로 나를 채웠다. 불기둥 한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셨고, 그 불기둥이 온 주변으로 퍼졌는데도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처럼 다른 한 분이 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분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 시현에서 많은 천사를 보았다.”

## “Church History”, 1842년 3월 1일(웬트워스 서한)

“저는 숲 속의 은밀한 장소로 가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기도하는 동안 저를 에워싼 것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으며, 하늘의 시현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영광스러운 두 분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모습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낮의 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모든 교파가 그른 것을 믿고 있으며 어떠한 교파도 당신의 교회와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그러한 교회를 따르지 말라.’라고 명하시며, 언젠가 복음의 충만함이 저에게 알려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Joseph Smith’s Accounts of the First Vision,” josephsmithpapers.org)